

직업계고 경쟁력 입증...반도체 기업 ‘온세미코리아’ 72명 합격

전남광주 학생들 삼성전자·애플 이어 대규모 채용 성과
지역 첨단 산업 확대에 대응할 실무인재 양성 역량 확인

전남광주 직업계고 학생들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잇따라 합격하며 지역 첨단산업을 이끌 실무인재 양성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온세미컨덕터코리아 채용에서 72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삼성전자와 애플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 서도 꾸준히 합격자를 내면서, 향후 지역 반도체 산업 확대에 대응할 인재 공급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관내 직업계고 학생 72명이 반도체 기업 온세미컨덕터코리아㈜의 2027년도 필드파트너(Field Partner) 채용에 최

종 합격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5월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세미코리아 채용설명회를 열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원서 접수부터 면접까지 채용 전 과정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전남·광주에서 72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이들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전남광주 직업계고가 2023년 삼성 전자 45명, 2024년 애플 83명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은 것이다.

이는 직업계고가 첨단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춘

교육을 통해 반도체 분야 실무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향후 반도체 특화단지 등 관련 산업의 지역 유치에 본격화할 경우, 지역 직업계고가 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주목할 만큼 뛰어난 실무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며 “지역 반도체 산업과 직업계고 교육을 긴밀히 연계해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과 사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광주 관내 직업계고 학생 72명이 우수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코리아’의 2027년도 필드파트너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순천에서 진행된 ‘2026 관장은 일자리 채용설명회(2화차)’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 새마을지도자 한자리... 화합·실천 의지 다져

도·시군협의회장단 등 100여명 다짐대회...소통·화합 강화
우수 지도자 표창·정보 공유...“현장 중심 봉사 적극 실천”

전남지역 새마을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

새마을지도자전남도협의회(회장 박창덕)는 지난 19일 해남유스호스텔에서 도 및 시군 협의회장단과 임원, 사무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남 새마을협의회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별 활동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도와

시군 협의회장단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자율·자립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의식행사와 2부 화합의 시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이어 대회사와 격려사, 축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의미와 앞으로의 역할을 되새겼다.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2부 화합의 시간에는 도와 시군 새마을지도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그동안의 활동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다졌다. 특히 지역별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새마을운동 사례를 공유하며 조직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창덕 회장은 “이번 한마음다짐대회가 도와 시군 새마을지도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새마을운동의 실천 역량을 높이고 지역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은행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2026년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사진제공=광주은행

광주은행,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후원금 1억 전달

1995년부터 누적 62억원...“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

광주은행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2026년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세계적인 현대미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했다.

전달식에는 정일선 광주은행장, 고광완 광주특별시 부시장, 윤범모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대표 등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1995년부터 광주비엔날레를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를 포함해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전달한 누적 후원금은 총 62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임방울국악제 등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문화적 정체성과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국제 행사”라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민 기자 aura@gwangnam.co.kr

탄소 넣었다 빠나...반도체 배선 저항 45% ‘뚝’

GIST·삼성전자 SAIT·미국 MIT 공동 기술 개발

광주과학기술원(GIST) 중앙기기업구조 조율론 박사가 삼성전자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및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연구진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 배선의 전기저항을 낮추는 소재 제어 기술을 개발했다.

GIST는 조 박사가 공동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가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지난 13일 온라인 게재됐다고 21일 밝혔다.

연구팀은 루테늄(Ru)에 미량의 탄소를 첨가한 뒤 열처리 과정에서 탄소가 결정립의 성장과 재배열을 돕고 이후 빠져나가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루테늄은 전기전도성과 열·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해 초미세 반도체 배선에서 기존 구리를 대체할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배선 폭이 수nm 수준으로 줄어들면 금속 결정립들이 맞닿는 결정립계에서 전자가 산란해 저항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루테늄 원자 1000개당 약 5개에 해당하는 0.48at%의 탄소를 첨가했다. 열처리 과정에서 탄소가 결정립계로 이동한 뒤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인 빈 공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루테늄 원자의 이동과 결정립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실시간 가열 투과전자현미경(In-situ Heating TEM)으로 변화를 관찰한 결과, 450℃에서 열처

리한 루테늄 박막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약 13nm에서 91.7nm로 7배가량 커졌고 결정 배향도는 99.3%에 달했다.

전기적 성능도 향상됐다. 두께 8nm 루테늄 박막의 비저항은 11.2μΩ·cm로 기존보다 29.0% 낮아졌으며, 실제 초미세 배선 구조에서는 배선 저항이 45.4% 감소했다. 2nm 수준의 차세대 배선에 필요한 전기적 성능도 충족했다.

복잡한 3차원 구조에서도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종횡비 33대 1의 좁고 깊은 트랜치에 12nm 두께의 루테늄을 코팅한 결과 측면과 바닥까지 99.1%의 균일도를 확보했으며, 결정 방향도 유지됐다.

조율론 박사는 “미량 원소를 불순물이 아닌 일시적 결정 성장 촉진제로 활용해 결정의 성장과 정렬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실시간 투과 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배선 소재의 구조와 전기적 성능을 함께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원리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새마을지도자전남도협의회는 지난 19일 해남유스호스텔에서 도 및 시군 협의회장단과 임원, 사무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남 새마을협의회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했다.

나주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지역 맞춤 ‘일자리 생태계’ 구축
경제활동인구 6만8300명 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지역 산업과 인구, 고용 여건에 맞춘 일자리 정책으로 정부 일자리 평가에서 4년 연속 수상하며 지역 맞춤형 고용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이번 수상을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여성,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생태계 구축에 힘쓴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부 주관의 대표적인 지역 일자리 평가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속 가능한 5G 성장, 나주형 일자리’를 핵심 전략으로 지역의 산업, 인구, 고용 구조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5년에는 당초 목표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행복일자리 9319개를 넘어 총 978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경제활동인구 역시 6만83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인구 규모가 유사한 전국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청년층과 여성 고용률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며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의 실효를 보여줬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의 산업구

조와 인구·고용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기업과 유관기관, 시민이 함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온 과정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며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과 여성, 취약계층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